

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아연주간뉴스단평 2021-05-30

아나키스트연대

아나키스트연대
아연주간뉴스단평 2021-05-30
2021.05.30

<https://blog.naver.com/anarchistleague/222375319287>

kr.theanarchistlibrary.org

2021.05.30

1. [우리노동은우리가알아서하렵니다.]

2021년, 노동자의 안전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긴 세월 동안 오갔음에도 불구하고 고아직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어나가고 있다. 어떤 청년 일용직 노동자는 컨테이너 철판에 깔려 아버지의 눈 앞에서 세상을 떠났고 어떤 젊은 일용직 노동자는 손전등이 없어서 칠흑 같은 밤에 감싸인 크레인 꼭대기 위에서 손전등 하나 없어서 발을 헛디뎠다. 게다가 비록 다른 산업 현장이지만 어떤 50대 일용직 노동자도 용접 작업을 하다 철판에 깔려 우리 곁을 떠났다. 이 모두가 현장 노동자들은 안전 장비 및 교육, 인력에 대한 투자를 요구해왔었지만 어떻게든 ‘효율성’과 ‘이윤’을 추구하던 자본가들이 비용을 아끼려고 무시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와 임금 노예제를 비판하면서도 ‘청년에게 고함’이라는 참으로 따뜻한 글을 썼던 크로포트킨이 별세한지 100년이 되는 지금도 자본주의는 여전히 임금 노예제를 유지하면서 노동자들을 소모품처럼 착취하다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이렇게 글을 쓰다 보면 누군가는 꼭 ‘그래도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지지 않았는가? 앞으로 더 나아지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되물을 것이다. 보통은 이에 대해 과거보다 나아진 면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산업 현장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런 비극이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반론할 것이다. 하지만 최근 예본 기사를 보면 과연 과거보다 나아지기는 했나 의문이 들기도 한다.

2021년 5월 25일, IT 대기업 네이버의 한 직원, 그것도 개발 부서 책임자급 이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한 메모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되었다. 이에 네이버 직원들은 개발 담당 임원의 상습적인 폭언에서 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닐까 하는 의혹을 제기했다. 어찌 보면 산업 재해보다는 그냥 개인 간의 불화가 아닐까 싶겠지만 웃기게도 2년 전에 퇴사했다 돌아온 이 임원의 복귀를 많은 직원들이 강하게 반대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반려되고 결국 많은 직원들이 어림없이 예상했던 대로 누군가를 죽음으로 몰아 버렸다. 이는 엄연히 산업 재해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해 네이버 노동조합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IT 인력이 참으로 귀중한 이 시대에, 개발자 책임자급마저도 기업의 이기적인 판단과 무자비한 임원의 폭력 끝에 죽음을 택하고 만다. 게다가 여전히 고된 현장의 일용직 노동자들 역시 너무나도 쉽게 죽어 나가고 있다. 이게 어찌 과거 자본주의보다도 나아졌다고 함부로 말할 수 있겠는가? 민중은, 결국 하나의 노동자 인민중은 더 이상 이런 무책임하고 반공생적인 기업의 폭정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민중은, 노동자는 노동현장을 조금이라도 더 자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노동은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가 가장 잘 아니 우리가 알아서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노동조합을 필히 조직해야 한다.

”” 손전등 못 받아서 어둠 속 추락”... 3년새 12명 사망” :

https://imnews.imbc.com/.../article/6189005_34936.html

”” 또 300kg 철판에 깔려”..50대 노동자 참변” :

https://imnews.imbc.com/.../article/6189360_34943.html

” 네이버 개발자의 갑작스런 죽음...” 임원이 상습 폭언”” :

2. [땅고기들에게고함]

반갑습니다. 범고래입니다. 지난주, 땅고기들이종차별적언어를개선해야 한다며몇몇단어들의개선을주장했다는이야기를들었습니다. 그들은우리가먹는고기들을칭할때, “살아있는존재에식용하는동물의살을뜻하는‘고기’를붙일 수없다”며‘물고기’라고부르면안된다고합니다. 그들은대신‘물살이’라는단어를 쓰자고합니다.

하지만우리도물에살고있습니다. 우리뿐아니라물개도, 듀공도, 고래도, 상어도, 불가사리도, 말미잘도물에살고있습니다. 어떻게이모두를하나의단어로 합쳐서부릅니까? 우리는유령이아닙니다. 우리또한물에살아가는, 그들이일컫던바, 물고기가아닌존재들입니다. 단지어류가수가많고, 땅고기들의집에서기르는애완용어항에더 많다는이유만으로, 우리를이토록무시하여서는안됩니다.

더나아가봅시다. 우리는고기를, 아니“물살이”를먹어야살수있습니다. 아니, 저들도그러합니다. 고기를먹지않으면저들은살수없습니다. 설혹고기를먹지않는다고해도, 지력을소진해가며“농사”라고불리는대량사육을하고, 그렇게길러진농작물, 아니, “땅살이”들을먹어야살아갑니다. 모든생물은, 다른생물을식용해야살아갑니다. 왜“고기”라고부르면안됩니까?

땅고기들은“사회각분야에서차별적언어를개선하는움직임이있는데그런흐름에서동물과인간을차별하는언어도변화가필요하다”고말합니다. 하지만우리는땅고기들과다른존재입니다. 왜자기들마음대로, 우리를칭하는언어를, 자기들기준에맞추어바꾸려고합니까? 우리가언제, 그런것을요구한적이있습니까?

서로다른존재면, 다르게살아가면됩니다. 땅고기들은본인들의역사에서배우는것이없습니까? 식민주의의시대에, 제국주의자들이“야만인”을만났을때, 그“야만인”들에게차별적인언어를사용하는것부터시작했나요? 아닙니다. 저들은우리와같은존재이지만, 안타깝게도“문명화”가되지못한존재들이기에, 불쌍한야만인들을같은인간으로대하여, 교화하려했습니다. 백인의짐을졌습니다. 그리고이제는, 왜, 우리를불쌍하게바라보니까?

나는한명 (名말고命이요. 네.) 의범고래로서, 땅고기들의어류중심주의를 규탄합니다. 물에서사는존재들의독립적인삶을무시한채, 땅고기자신들의기준을들이대어일괄적‘물살이’로만들어버리는그들의만행은, 결국‘정규-물살이’와 ‘비정규-물살이’사이의분할을, 그사이의차별을만들어낼것입니다. 나는이러한분할책동을단호히거부합니다.

그리고나는하나가아닙니다. 나는갑작스레팀으로취급당할굴동지와연대할것입니다. 나는종거나, 웃김의대명사가될권리를빼앗긴개동지와연대할것입니다. 나는‘자웅 (암컷과수컷)’이한몸에있는존재에서, 갑작스레땅고기들마냥남녀가되어버린전복동지와함께싸울것입니다.

세계물살이의사회혁명만세!

” 몇마리가아니라몇명 (命) ’ 중차별적언어바꿔야” :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076949>

3. [노무현정신운운은이제그만하자, 제발]

노무현이죽은날이돌아온지얼마나됐다고노무현정신을운운하면서현대통령을까내리거나, 현대통령을비판-비방하는세력을까내리는사람들이늘어나고있다. 얼마전부터계속오오던소위 ’ 노무현정신계승’ 드립때문이다. 그사람이죽고난뒤그사람의정신을계승하겠답시고나서는사람들이우후죽순에, 심지어무슨변화니진보니추구한다는사람들도그런말을쓰고있었다.

여기기사에나오는소위 ’ 친노반문’ 이랍시고진보세력의대표주자로나선이들과진석사님을포함해서말이다. 솔직히그사람들, 부끄럽지도않은가? 지금은그렇게표현의자유와열린사회를주장하는사람들이그때에는뮌했나? 노무현이’ 지금과같이민주화된시대에노동자들의분신이목적달성하기위한투쟁수단으로사용되어서는안된다.’ 라고말했을때, ’ 지금시대에노동자들이자살을자제해야한다는내부지시’ 를내렸을때, 그사람들은어디서무엇을하고있었나?

이제는문재인이노무현을배반했다느니하는말이너무나도우습다. 애초에노무현을배반했다는것이어떤의미로사용되는것인지에대해서는그노무현이엄청나게신성화됐기때문어나오는것은둘째치고서라도, 노동자민중의투쟁을찍어누르고대추리에서군인을동원해서위대를해산시키던노무현과마찬가지로열심히경찰권력을통해시위대와노동자민중을해산하고있지않은가?

대체어떤노무현정신을말하는것인가? 표현의자유와다양성을주장하지만그걸찍어눌렀던노무현정신을말하는것인가? 대체왜그런표현을자꾸사용하는것인지우리는도통이해할수없다.

이제그만하자, 제발. 노무현정신은없다. 있다하더라도환상이거나, 폭압의연장선일뿐이다. 이제는그환상에서벗어나자, 제발.

” ” 문재인은노무현을배반했다” 진중권의말이빠아픈이유” :
<https://mnews.joins.com/article/24069404#home>

4. [그집을노동자에게지우려하지마라]

콜롬비아에서정부의생필품세금인상안으로인해촉발된노동대중의투쟁이이러지고있다. 대중의투쟁앞에정부가굴복하여인상을철회하기로했지만빈곤, 불평등, 부조리에대한콜롬비아대중의투쟁은계속되고있다.

세계어디든간에작금의코로나사태에서가장고통받고있는대상은노동대중이며콜롬비아에서도또한그러했다. 콜롬비아의노동대중은부실한사회보장과실업률로고통받았지만지배계급은코로나사태라는집까지노동대중에게지우려했다.

지금이사기, 지배계급은그들입은자본의손실을노동대중더욱착취하려함으로서만회하려하고있다. 어려운시기에자본을수호하는것에노동자들의경제적

삶이달린것인양말이다. 우린선전에넘어가지아니해야한다. 위기상황을악화시키고있는건자본계급이다. 그들의의료민영화때문에노동계급환자들이병실없이죽어가고사내에노동자로부터착취한돈을쌓아두기에일자리없이나없는실업자들이늘어가며생산성, 경쟁력확보를명목으로한과로와안전부재로노동자들이죽어나간다. 짐을져야할쪽은노동자가아닌자본가다.

세계의모든곳에서, 콜롬비아에서도이곳한국에서도위기상황을이용한자본계급의공격에대한노동대중의저항이이어지고있다. 어려운시기이지만노동자들의연대를견고히하고자본에대한투쟁을이어나간다면위기속에서착취와탐욕이나마벗어나보다나은상황을만들수있을것이다.

” 콜롬비아시위: 코로나 19 보다무서운불평등과폭력” :
<https://www.vop.co.kr/A00001572517.html>